

제7회 효문화 백일장 공모전 공고

우리원에서는 효문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문학의 생활화로 아름다운 효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초우문학회와 함께 『제7회 효문화 백일장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대전효문화진흥원장

1. 공모전명: 제7회 효문화 백일장 공모전
2. 접수기간: 2019. 4. 5. ~ 6. 30. ※ 마감일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6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3. 공모분야: 시와 시조(동시, 동시조 포함), 수필(산문)
4. 응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 가능(등단작가 제외) ※ 1인당 최대 2작품 신청 가능
-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심사
5. 응모시제
○ 시와 시조(동시, 동시조 포함): 선물, 안경 (택1)
○ 수필(산문): 아침, 의자 (택1)
6. 응모주제: 일상생활과 농촌 또는 자연속에서 겪은 효와 가족사랑에 대한 이야기
7. 선정인원: 50명
- 대상(대전광역시장상) 2명, 최우수상(대전광역시교육감상) 4명,
우수상(이하 대전효문화진흥원장상) 6명, 장려상 8명, 입선 10명, 특선 20명

8. 모집부문 및 작품형태

- 모집부문: 시와 시조(동시, 동시조 포함), 수필
- 응모작 수: 1인 2점 이내(단체 불가) ※ 시 또는 시조 중 1점, 수필 1점 이내
- 작품제출규격 ※ 대전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hy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시, 시조: A4 제출 ※ 시조의 경우 붙임 '시조의 형식과 예시' 참조
 - 한글(hwp)파일 / 글꼴: 바탕, 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여백: 위쪽 20, 머리말 15, 아래쪽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 수필, 산문(A4 또는 원고지 제출)
 - A4용지 2매 이내 / 글꼴: 바탕, 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용지여백: 위쪽 20, 머리말 15, 아래쪽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 200자 원고지 11~13매

9.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9. 4. 5. ~ 6. 30. ※ 마감일 18:00 까지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서약서 포함), 작품(시, 수필) 각 1부
※ 진흥원 홈페이지(www.k-hy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 hyogongmo@k-hyo.kr

• 메일제목: 작품제목_응모자이름	예) 효문화_임희라
• 참가신청서 파일명: 작품제목_응모자이름_참가신청서	예) 효문화_임희라_참가신청서
• 작품 파일명: 작품제목_응모자이름	예) 효문화_임희라

- 우편: (35074)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5 대전효문화진흥원 3층 사무실
공모전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6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 다수 작품 신청 시 포스팅별 각각의 참가신청서 작성

10. 응모조건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음원, 영상, 일러스트, 폰트, 이미지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분쟁이 발견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이후라도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 원칙
 - 단, 수상작을 공모전의 취지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전시, 출판 등 홍보자료로 이용
 - 별도 합의에 의하여 진흥원의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전체나 일부 취득이 가능함

《유의사항》

- 출품작은 지원자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당선 후 순수 창작물이 아닐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상금이 환수됨
-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점수는 비공개 하며,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거나 시상 내역 변경 가능
-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하며,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함
※ 반환과 관련된 추가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할 수 있음

11. 심사방법

- 심사기간: 2019. 7월 초
- 심사방법
 - (1차)예비심사: 진흥원 내부심사(담당부서)
 - ※ 공모취지 부적합, 저작권 침해, 작성 규격 미준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작품 선별
 - (2차)본 심사: 전문가(외부 위원) 심사
 - ※ 문학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12. 심사 기준: 4개 항목(100점 만점)

항 목			심 사 기 준	배 점
합 계				100
공통 항목	주제적합성		· 작자의 의도와 주제가 분명한가	25
	내용의 독창성		·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인가	25
	구성의 통일성		· 전개 방법과 구성에 일관성이 있는가	25
분야별 항목	시	율격과 운율성	· 율격과 음수율이 정확한가	25
	시조	형식의 정형성	· 내재율이나 외형률이 있는가	
	수필/산문	진행의 필연성	· 글의 진행에 필연성, 개연성이 있는가	

13. 시상내역

○ 시상인원: 총 50명

○ 세부시상내역: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려상 8명, 입선 10명, 특선 20명

상 명		시 상 내 역	
		수상인원(명)	상 금
총 계		50	
대전광역시장상	대 상	2	7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전광역시교육감상	최우수상	4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전효문화 진흥원장상	우수상	6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장려상	8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입 선	10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특 선	20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 심사결과 해당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 편수를 조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및 농촌사랑상품권 등 활용

※ 공모전 상금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초우문학회에서 지급

14. 심사 결과 발표 : 2019. 7. 12.(금) 18:00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SMS 개별 통보

15. 시상식

○ 시상일자 : 2019. 7. 20.(토) 예정

○ 시상장소 : 대전효문화진흥원 2층 회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부 공모전 담당자(☎042-580-9057)로 문의

시조(時調) 의 형식과 예시

○ 시조(時調) :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의 하나

○ 시조의 기본 형식 : 평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으며 4음보 격이다. 자수는 시조마다 1,2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장 첫째 구만은 3음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조의 기본 형식)

초장	3	4	3	4
	전구		후구	
중장	3	4	3	4
	전구		후구	
종장	3	5	4	3
	전구		후구	

(참고사항)

초장과 중장의 (3·4)의 구조는 (4·3)또는 (4·4)의 구조로 변형되는 것을 허용하여,

종장 전구의 형식 (3·5)에서 3의 자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5의 자수는 5~7자 까지 허용되며, 종장 후구(4·3)는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글자 수가 45~47자의 범위 내로 작성하는 것이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예시)

아버지의 선물 (백발회흑)

이 군 익

아내와 이별 후에 백발이 되시더니
명산대천 정기 받아 검은 머리 새로 솟네
한잔 술
벗 삼은 황혼
만수무강 하소서

※ 대전효문화진흥원 3층에 전시되어 있는 금강산 지계효자 이군익(시조시인)의 시조 중에서 발췌

(시조해설)

아버지의 선물 (白髮回黑)

2006년 6월, 92세의 아버지를 스스로 제작한 지계의자에 모시고, 금강산을 올랐던 이군익(당시 42세, 농협 근무)의 시조.

연로하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으신 후, 3개월 만에 백발이 되셨다가, 지계의자와 더불어 금강산 등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시며 3년 여 세월이 흐른 뒤,



산의 정기를 받은 아버지의 백발이 다시 검어지는 기적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은 시조.

수필 예시

제목 : 금강산 지게의자

지은이 이 군 익

[소속 : NH농협은행]

‘지게’는 우리민족의 애환이 서린 고유의 유물이다. 노동과 애환의 상징인 ‘지게’와 ‘의자’가 화합하여 만들어진 ‘금강산 지게의자’의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나는 충남 서산의 팔봉산 기슭에서 농부의 칠남매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농협에 입사하니, 아버지는 팔순(八旬)을 바라보고 계셨다. 종종 부모님과 행복한 여행을 하면서, 두 아이의 학부형이 되니 아버지는 구순(九旬)을 넘기셨다. 2004년 겨울, 따듯한 봄이 오면 부모님과 금강산여행을 하려고 농협산악회를 따라 현지답사를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봄이 오기도 전에 갑자기 심해진 지병(천식)으로 돌아가시니, 한없는 슬픔의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덮치고야 말았다. 구순에도 검은머리였던 아버지는 슬픔과 외로움에 3개월여 만에 백발이 되었다. 나는 자식의 슬픔을 깊이 감추고, 아버지의 시름을 달래고자 주말마다 산과 들로 여행을 다녔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슬픔의 강에서 한 해가 가니 아버지는 92세가 되시고, 나는 42살이 되었다.

2006년 4월 아버지와 독립기념관 여행길에, 6월에 다가올 92세 생신(生辰)에 대하여 형과 의논하였다. 아버지의 슬픔이 아직도 깊으시니, 금강산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연로하신 아버지가 금강산을 올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온다면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중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지게에 의자를 장착하여 지고 오르면 아버지는 마음껏 구경하시고, 산의 정기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등에 지고 금강산을 오르면,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 보며 환하게 웃어주실 것만 같았다.

철사모형을 들고 철공소를 찾아다녔으나 모두 손사래를 쳤다. 막막한 마음에 공장을 운영하는 고향친구에게 기술자를 소개받아 부천에 위치한 공업사로 찾아갔다. 기술자의 조언에 따라 동대문시장에서 지게배낭을 어렵게 구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 전용 지게의자’를 만들었다. 집으로 가져와 폭신한 방석과 안전벨트를 달고, 아버지보다 좀 더 무거운 아들(당시 중2)을 태워 시운전을 해 보니 성능이 마음에 들었다.

2006.06.06.일, 형과 큰누님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으로 출발하였다. 다음날 아침, 현대아산의 버스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북측 CIQ에 도착하니, 물품 검색대가 작아서 지게의자가 통과하지 못하였다.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굳은 표정의 북측 감시원이 다가와 “이거 이 뭐네까?” 하고 물었다. “ 아버지를 태우고 제가 지고 금강산을 오르려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르신 연배가 어케 됩네까?” 하고 묻기에, “올해 아흔 둘이십니다” 하니, 차가웠던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그냥 통과하시라요!” 하였다. 순간 “아 ~ 역시 우리는 같은

핏줄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반갑게 악수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가 슬쩍 물러서기에 할 수 없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와 나눈 눈빛에는 분단의 아픔과 감사의 눈빛이 교차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첫날, 구룡연코스 출발지점에서 아버지를 태우고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니, 관광객과 북한 안내원들이 모두 감탄을 하였다. 어깨는 터질듯하고 등허리는 갈라지는 느낌이었으나, 하늘에서 환하게 웃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감내하신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니 더욱 힘이 솟는 느낌이었다. 산행 후 온천 거울에 비친 상반신은 온통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가슴에는 뿌듯함으로 가득하였다. 둘째 날, 만물사에서 아버지와 나는 만물상 너머 끝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두 사내가 만물상 앞에 서서 하나는 아내가 그리워서, 또 하나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눈가에 솟아나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마음속으로 엉엉 울고 있었다. 그 후 지계의자와 더불어 중국여행과 팔도유람을 하며 약 3년이 흐르니, 아버지는 백발이 다시 검어지는 기적 같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은 어찌할 수 없었다. 2012년 4월(98세), 봄 햇살 가득한 날에 마치 주무시는 듯, 조용히 영면(永眠)에 드셨다.

‘금강산 지계의자’ 여행기는 대학선배의 신문사 제보로 각종 매스컴에 회자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세상에 퍼져 나갔다. 기사를 본 재중(在中) 한국인이 우리를 초청하여, 공자의 유적과 태산(泰山)의 정상을 지계의자에 아버지를 모시고 유람하였다. 이 모습을 중국 산둥TV와 치루TV 등에서 취재하여 “중국이 한국의 젊은이에게 배워야 한다”며 주요뉴스로 보도하였다. 미국의 라디오방송 VOA와 RFA, 그리고 ‘아리랑 TV’에서 제작한 ‘금강산’ 홍보영상에서도 ‘지계의자’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제 주인을 잃은 ‘지계의자’는 2017.9월 부터 대전효문화진흥원에 전시되어 있다. 아버지의 자리에는 큼지막한 곱 인형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지계’와 ‘의자’의 화합을 통한 사랑의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유감스러웠던 일은 지계의자를 만든 이후 나에게 다가와 ‘고려장’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대 아시아 일대에 널리 회자되던 기로(耆老)설화를 접한 어느 미국인이 일본에서 집필한 책(은자의 나라 조선)에서 최초로 언급하였다고 한다. 기로(耆老)와 고려(高麗)의 영어 표기의 한계 또는 오류가능성이 추정된다. 그 후 일본 학자가 고려장을 명문화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의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다. 이제 오욕의 역사에서 파생된 분진을 떨쳐버리고, 우리 민족의 숭고한 효 문화를 널리 장려하여 진흥하고 이를 체계화하여야 할 때이다. ‘지계’와 ‘의자’의 화합이 또 다른 화합과 소통으로 이어지고, 진정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작은 매개체가 되기를 기원한다.